

# 위구르 王國의 服飾에 關한 研究

성선여대 의류식물학과

강사 윤 양 노

## 目 次

- |   |   |
|---|---|
| I. 序 論<br>II. 歷史的 背景<br>III. 위구르 王國의 服飾<br>1. 文獻에 의한 考察 | 2. 出上遺物에 의한 考察<br>3. 現在 위구르인의 服飾<br>IV. 結 論<br>參考文獻 |
|---|---|

## I. 序 論

오늘날 아시아 대륙의 동북 각 민족이 구석기시대 후기에 어떤 씨족을 형성하고 있었는지를 소리해 알 수는 없으나 이들이 곧 蒙古人種의 北方 蒙古亞種에서 기원했음을 단언할 수 있다. 中石器時代에 이르러서는 이들 일부 벼금종족에서 다시 진일보하여 일부 사신들만의 특징적인 言語를 갖는 種族類型集團이 문화되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신석기시대 초기부터 후기에 이르는 동안 각 종족 유형 집단 중에는 다시 분화하여 공통언어와 공통민족성을 가진 종족을 형성하게 된다. 예를 들면 華夏種族, 東夷種族, 原始通古斯種族, 吉亞細亞種族 등이다.<sup>1)</sup>

위구르족의 인원은 기원전 중국북방의 유목생활을 하던 “丁零”과 4.5세기의 “鐵勒”으로 기술되 올라갈 수 있다.<sup>2)</sup> 匈奴, 鮮卑, 突厥에 이어 몽골고원에 거주한 민족으로 8세기 중반경 돌궐뒤에 터어키계인 回紇에 의해 몽골고원에 왕국을 세웠다.<sup>3)</sup> 역사상 일찍부터 西域으로 일컬어 졌으며 위구르어는 돌궐어족(突厥語族, Turk Family)에 속

한다. 漢唐때에 실로로드가 반드시 통과하는 국위으로 말미암아 옛날부터 동서문화교류의 교통로가 되었다.<sup>4)</sup>

실지로 위구르 지역에서는 타크라마칸 사막 북쪽, 天山山脈 南麓의 동방에 해당되는 지역에서는 中國 前漢時代의 것으로 보이는 鏡이 출토되었으며 타크라마칸 사막의 南方 岑崙山脈 북쪽에 위치한 尼雅 유적에서는 中國의 前漢 또는 後漢時代의 것으로 보이는 鏡과 이것을 넣었던 직물주머니가 함께 발견되었다. 또한 前漢, 後漢時代의 銅印도 발견되었다.<sup>5)</sup> 반면 中國北朝時代에 傳來되었던 유리 容器나 우리나라 新羅古墳에서出土된 것과 같은 유리 容器가 新疆지역에서 다수出土되었다. 이러한 유리용기는 로마에서 만들어 졌던 것이 西方의 실로로드 또는 草原地帶를 통해 新疆의 위구르지역을 거쳐 中國으로 진해져 東方으로 傳播된 것이다.<sup>6)</sup>

한편 廣州에서 발견되었던 石造物에서 보여지는 連珠文은 中國의 乾陵에서出土된 陶俑中에 連珠文의 의복을 착용한 武人像이 있어 현재 陝西省博物館에 展示되어 있다. 또한 푸르廟의 郊外에

1) 孫進己著, 休東錫譯, 東北民族原流, 東文書, 1992, pp. 24-25.

2) 華樹哲, 朴聖質, 李秀雄譯, 中國服飾史, 農林社, 1991, p. 273.

3) 杉本正年, 東洋服裝史論考, 中世編, 文化出版局, 昭和54年, p. 221.

4) 華樹, 前揭書, p. 274.

5) 橋藤與志夫編著, ウイグル その人びと 文化, 朝日新聞社, 1991, pp. 45-47.

6) 上揭書, p. 67.

있는 高昌國의 道城遺跡 아스타나 古墳群에서도 발견되었는데 이 連珠文의 根源은 西方川岱에 그起源을 두고 있으며 新疆 위구르지역을 通して 東傳한 것으로 알려진다.<sup>7)</sup>

따라서 위구르지역은 당시 東方과 西方의 關係를 連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본 研究에서는 이러한 점에 의미를 두고 위구르인의 복식에 대해 文獻과 出土遺物資料를 통해 服飾의 종류와 형태 및 사용된 문양을 연구하여 東西文化交流關係를 조명하고자 한다.

## II. 歷史的 背景

庫車(또는 高車)는 높고 큰 車輪을 사용하였는데 위구르(回紇, uighur)의 先祖이며 北魏와 隋는 통칭 “烏鵲(烏紇)”, “韋紇(袁紇)”이라 하였으며, 唐宋때에는 “回紇”, “回鶻”이라고 지칭하였다. 元代에는 “畏兀兒”로 고쳤으며 곧 오늘날의 漢吾爾의先祖로 그 本意는 團結, 聯合이라는 뜻이다.<sup>8)</sup>

위구르는 匈奴, 鮮卑, 突厥에 이어 蒙古草原에 居住했으며 이 지역은 北으로는 알타이 산맥이 서북에서 남동으로 뻗어있고 남으로는 天山山脈이 동서로 뻗고 있으며 중앙에는 天山山脈의 농서로 뻗어 있는 극도로 乾燥했던 지역이며 타구 분지周邊에서는 紀元前부터 고도의 文化를 지닌 都市國家들이 있었다. 또한 중국 세계가 그 존재를 알았던 것은 紀元前 2世紀末 張騫이 중앙아시아로 派遣되었던 아래의 일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지역은 紀元前 3~2世紀에는 匈奴, 5世紀에는 柔然, 6世紀에는 突厥, 7~8世紀에는 唐, 8世紀에는 吐番, 9世紀에는 위구르, 10世紀에는 몽골이 支配하였다.(表 1 參照) 실지 위구르 분지의 오아시스의 주인공이라 하는 위구르족은 터어 키系이다.<sup>9)</sup>

위구르왕국은 북방초원의 길을 지배했으나 9世紀 중반경이 되어 그主力은 중앙아시아로 이동하고 일부는 타린분지로 侵入해서 투르판과 쿠차를 점거했다. 907年 天山山脈의 남북로로 부터 하서 일대에 걸쳐 강대한 西위구르 왕국이 建國되었다. 흔히 西위구르 또는 高昌回鶻, 西川回鶻이라 한다.

遊牧民族인 위구르族이 定着社會를 건설하는데 크게 공헌한 민족은 소그드(sogdian)인이었고 위구르人과 소그드人은 過去 東위구르시대부터 政治, 文化, 宗教, 言語에 이르기까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특히 소그드人们은 당시 샤미니즘 단계에 머물고 있던 위구르人们을 摩尼敎로 개종시켜 이를 국교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sup>10)</sup>

위구르는 天山山脈을 경계로 南은 오아시스 農業을 北은 牧畜을 주로 행하고 있으며 農業生產物로는 小麥, 米등의 곡물과 綿花, 果實, 養蠶이 이루어지고 牧畜관계로는 肉, 乳, 羊毛, 皮革이 주이며 특히 絨纏과 分段紋結構錦은 이들의 유명한 공예품이다.

또한 商業의 성격을 지니고 古來로 부터 東西交通上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다.

## III. 위구르 王國의 服飾

위구르왕국이 세워졌던 지역에서 1世紀 후반부터 7世紀까지 존재했던 오아시스국가로는 北道에서는 東으로부터 西로 高昌國(투르판), 焉耆國(カラ사르), 龜茲國(쿠차), 疏勒國(카슈가르)이 있으며, 南道에는 鄯善國(로란), 于闐國(코탄)이 있었다.<sup>12)</sup>

따라서 8世紀 이후의 이들지역에 대한 文獻上記錄 및 出土遺物은 위구르人的 의복을 연구하는데 包含시켜야 한다.

7) 上揭書, pp. 77~78.

8) 華梅, 前揭書, p. 2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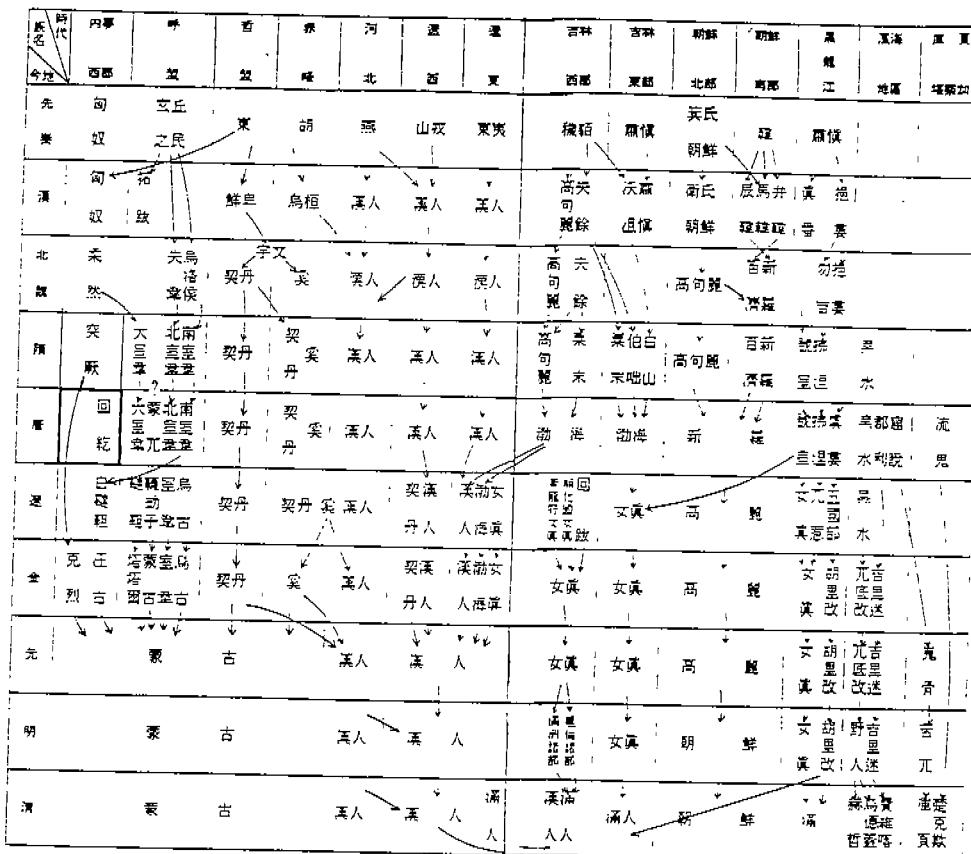
9) 權藤與志夫, 前揭書, pp. 22~29.

10) 安秉燦, 베제크릭(Bezeklik) 石窟壁畫 研究, 東國大學校 大學院 美術史學科, 碩士學位論文, 1989, p.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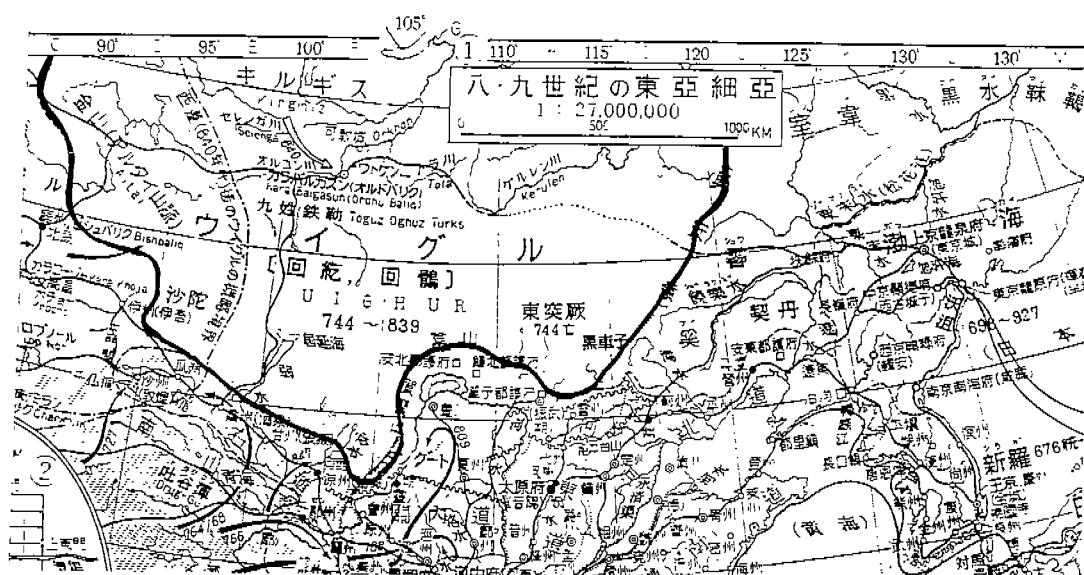
11) 權藤與志夫, 前揭書, p. 29.

12) 長澤和俊, 閔丙勳譯, 東西文化의 交流 民族文化社, 1991, p. 140.

[東北亞民族分布與源流表]



출처：東北民族源流, pp. 31-35.



&lt;圖 1&gt; 8, 9世紀의 東亞細亞

출처：標準世界史地圖, p. 21.

## 1. 文獻에 의한 考察

〈新唐書 回紇傳〉에는

‘人袞鹿如牛馬，惟食苔，俗以駕車 又以鹿皮爲衣，聚木作室，尊卑共居’<sup>13)</sup>

사람들은 사슴을 소나 말처럼 길들인다. 이끼를 먹으며 이로 수레를 끌게하는 습속이 있다. 또 사슴가죽으로 옷을 해입으며 나무를 모아 집을 짓고 높은이나 낮은이나 같이 산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 묘사는 어웬키(에빙키, Ewenki, 鄂溫克)인의 생활과 비슷하며 아마 어웬키의 선조가 이속에 끼어들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sup>14)</sup>

王延德을 단장으로 한 宋의 사절단 일행은 西위 구르왕국을 방문했는데 그가 기록한 “高昌行記”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음악을 연주할 때에는 많은 琵琶와 공후를 사용한다. 농산물 이외에는 白氈 그외의 布를 생산한다. 복장은 긴 筒袖長衣에 帶를 띠고 허리에 여러 가지 물건을 매달고 있으나 이것은 長靴를 애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목시대의 차취이다. 머리에는 冠을 쓴다.

여성의 머리는 상당히 꼬들인 형태의 髻를 틀고 빗과 비녀로 장식한다. 新五代史 四夷附錄 第三回 鶻條에는 五代當時의 위구르 왕국의 풍속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其地出玉·骨牛……罽毨騎驥之革 其地宜  
白麥·青螺麥·黃麻……耕而種 其可汗常樓居  
妻號天公主 其國相號媚祿都督 見可汗則去帽披髮  
而人以爲禮

婦人總髮爲髻高五六寸 以紅絹囊之 既嫁則加氈帽

즉 그땅에서는 옥, 이우……모직물과 면직물, 좋은말의 가죽이나고 그 땅에는 백맥, 청국맥(동보리), 황마가 나고 可汗은 항상 높은 곳에 거하며 妻는 천공주라 부르고 가한을 만날 때는 맨머리로 돌아가는 것이 예의고 부인은 모두 髻의 높이를 5~6寸으로 하고 붉은색 絹주머니로 싸고 기혼여자는 이에 氈帽를 덧쓴다.

“冊府元龜” 外臣部土風 第三高昌條에는 부인의 着衣에 대해 “着錦結頭瓊珞環釧”이라 했는데 結은

흘치기염의 의미이며 영락은 머리장식, 환천은 팔찌의 의미이다.

宋의 洪皓의 수필 “松漢紀聞”에는 “回鶻善結金線, 相瑟瑟珥” 즉 위구르인은 금선을 매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이 귀에서 슬슬움직이는 것을 좋아했다라고 있는 것으로 금귀걸이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南史 高昌傳에는 ‘有草實如繭, 繭中絲如細纏, 名曰白疊子, 國人取織以爲布, 布甚軟白, 交市用焉’

누에고치와 같은 풀열매가 있고 絹絲와 같은 가는 베실이다. 이름은 백첩자라고하고 사람들이 이로 옷감을 짜고 그 옷감은 매우 부드럽고 희며 교환용으로 사용했다라고 되어있어 당시 목면이 존재하고 있었음이 틀림없다.<sup>15)</sup>

“大唐西域記”에는 카라샤르지방이 복식에 대해 “服飾氈氈 斷髮無巾” 즉 무명과 모직물을 사용하고 머리는 짧게 하고 두건을 쓰지 않는다. 庫車(쿠차국, 屢支國)의 복식에 대해 이 지역인들은 비단과 모직물을 사용하고 머리카락은 짧게 하며 頭巾을 쓴다라고 기록되었다.<sup>16)</sup>

## 2. 出土遺物에 의한 考察

투르판지역의 庫車遺蹟地와 아스트나古墳 시쿠싱 寺院遺跡, 베제크릭 제9굴, 19굴 石窟 및 敦煌莫高窟등에서는 9~10世紀 위구르왕국의 王, 王妃, 貴族, 一般男女를 나타내주는 유물이 다수出土되었다. 따라서 문헌에서 나오는 복식의 형태 및 특징을 밝히는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유물에 표현된 위구르인의 복식은 다음과 같다.

### 〈圖 2〉 위구르 王

투르판에서 발견된 것으로 9世紀 위구르王의 祝願하는 모습을 천에 그린 旗이다. 王은 머리에 3개의 立飾이 있는 冠을 쓰고 턱밑에서 묶어 고정시켰다. 유목민족 특유의 발목길이 정도의 窄袖袍를 着用하고 衫의 문양은 두마리의 새가 큰원을 이루고 있다.

13) 新唐書, 回紇傳

14) 孫進己, 前揭書, p. 384.

15) 杉本正年, 前揭書, pp. 244-245.

16) 玄將法師, 權德周譯, 大唐西域記, 일월서각, 1983, pp. 22-23.



〈圖 2〉 투르판 出土 위그르王  
出處 : Along The Ancient Silk Routes. p. 196.

이 窄袖袍에 대해 杉本正年은 “이란식의 連珠模樣으로 꾸며져 있고 南史에서는 이와 같은 袍는 蕃客錦袍라 불리우며 成都의 금궁방에서 생산되고 위구르나 도변으로 보내졌던 것 같다.”<sup>17)</sup>고 기록하고 있다. 허리에는 등근 鏹具와 사각 跨板이 달린 佩飾外에 칼집있는 칼, 송곳, 부싯돌주머니, 曲玉形護身牌등을 늘어뜨렸다.

袍의 트임으로 보이는 검은색 무릎길이의 長靴는 革製品인듯하다. 손에는 꽃이 활짝 핀 꽂대를 들고 있다.

〈圖 3〉 베제크릴 19窟 壁畫 9世紀 위그르王

이 그림은 祭式상장의 臺座에 그려진 그림의 일부이다. 머리에는 문양이 새겨진 金花冠을 쓰고

턱밑에서 묶어 고정시켰다. 위구르복식의 대표적인 圓領窄袖長袍를 입고 鞍轡七事帶를 띠고 있으나 佩飾들은 명확히 볼 수 없다. Von Gabain의 연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위구르의 짧은 남자들은 수염을 깎지만 완전한 성인이 되면 코밀수염과 턱수염을 길러 늘어뜨린다라고 보고하고 있다.

王의 팔꿈치별 銘文에는 王 Alp Arslan(“brave lion”)이란 그의 이름과 태이들이 세겨져 있다. 손에는 역시 꽂대를 들고 있다.



〈圖 3〉 베제크릭 19窟 石窟壁畫 위그르王  
出處 : Along The Ancient Silk Routes. p. 172.

〈圖 4〉 베제크릭 9號窟壁畫 9世紀 위구르 國王  
3명의 王이 冠의 가장자리에는 cartouch(소용돌이 무늬장식) 모양이 있는 높은 tiara(金花冠)를 쓰고 있다. 긴머리는 여러갈래로 떠서 허리까지 늘어뜨렸다. 3명 모두 붉은색 圓領窄袖長袍를 착용하고 있는데 문양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

17) 杉本正年, 前揭書, p. 225.

袍에 대해 沈從文은 中國古代服飾研究에서 小袖花錦長袍라 하였는데 袍의 문양은 連珠紋 또는 繡染의 표현이라 생각된다. 帶는 옆은 가죽의 革帶에 圓形金具가 달려있고 끈가죽에 短劍, 부싯돌쌈지, 송곳, 묶은 수건등 일상 생활용품을 달고 있으나 일상적 사용목적보다는 階級標識으로 사용된다. 역시 손에는 꽃대를 들고 있다.



〈圖 4〉 베제크릭 9窟 壁畫 위그르王  
出處 : Along The Ancient Silk Routes, p. 108.



〈圖 5〉 敦煌莫高窟 409窟 위그르王  
出處 : 敦煌莫高窟 第五卷, p. 160.

〈圖 5〉 敦煌莫高窟 409窟 위구르王

王은 龍文白氈의 高冠을 쓰고 턱밑에서 묶어 고정시켰으며 머리는 여려가닥으로 따아 길게 늘어뜨리고 丹龍文圓領窄袖長袍를 착용하였으며 felt로 만든 長靴를 신었다. 사각의 幛板이 달린 革帶를 띠고 여러가지 佩飾을 늘어뜨렸다.

〈圖 6〉 베제크릭 9號窟 壁畫 9世紀 위구르 王妃

도토루라는 가발위에 金冠을 쓰고 있으며 鳳凰, 구름 등의 장식꽃이와 벼섯모양의 장식비녀를 꽂아 고정시켰다. 붉은색 窄袖袍를 입고 있는데 옷의 앞중심선과 윗소매 깃가장자리 무릎선등에는 붉고 흰색으로 짠 끈으로 장식되어 있다. 이에 대해 Gabain은 아마도 당시 재료의 幅(여기서는 35cm)을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하였다.<sup>18)</sup> 머리뒷쪽에는 위에서 발끝길이 정도의 짙은 붉은색 緞을 드리우고 둔부선 아래서 장식리본으로 묶었다.

V형의 넓은 깃에는 國王들의 高冠에 표현된 cartouch(나선모양)가 장식으로 수놓아져 있다. 목선안으로 붉은색 圓領의 內衣 모습이 보이며 또



〈圖 6〉 베제크릭 9號窟 壁畫 위그르王妃  
出處 : Along The Ancient Silk Routes, p. 109.

18) Along the Ancient Silk Routes—Central Asian art, Teh Metropolitan Museum of Art, 1982, p. 172.

한 소매끝에서도 보이는데 内衣를 겉에서 접어 넣거나 입은 것인지 혹은 별도의 끌동을 댄 것인지는 알 수 없다.

〈圖 7〉 투르판 出土 9~10世紀 王妃와 그의 딸  
이것은 숙련된 솜씨로 만들어진 자수품이며 王妃는 역시 꽃대를 들고 있다. 도토르라는 가발로 髢를 높게하고 金冠을 쓴듯하나 명확치 않다. 과도무늬가 刺繡된 넓은 깃이 달린 衫를 앞중심에서 여며 입었으며 〈圖 6〉의 王妃들의 옷과 같은 형태의 것으로 보인다. 衫속으로 圓領의 内衣를 입은 모습이 보인다.



〈圖 7〉 투르판 出土 위그르王妃 딸  
出處 : Along The Ancient Silk Routes, p. 205.

〈圖 8〉 敦煌莫高窟 409號窟 出土回紇王妃  
머리에는 博鬢冠을 쓰고 넓은 깃이 달린 紅色袖袍를 입고 있다.  
〈圖 6〉 〈圖 7〉 王妃의 衣처럼 무릎에 장식선에  
둘러 있고 뒷쪽에 綾를 드리워 둔부선에서 묶어  
늘어뜨리고 역시 꽃을 들고 있다.



〈圖 8〉 敦煌莫高窟 409窟 壁畫 위그르王妃  
出處 : 敦煌莫高窟 第五卷, p. 160.



〈圖 9〉 투르판 出土 위그르 貢族女人  
出處 : ARCHAEOLOGIE Und Kunst  
Der Seidenstrasse, p. 199.

〈圖 9〉 투르판 出土 9世紀 貴族女人肖像畫

일부가 손상되어 명확한 형태를 알 수 없으나 밑단 폭이 넓은 袍를 착용하고 있다. 깃선등에 폭이 넓은 장식선두름이 보인다.

〈圖 10〉 투르판 出土 9世紀 君主婦人의 모습

摩尼敎 깃발에 그려진 君主婦人모습은 하얀색의 베일이 달린 僧冠과 같은 帽子를 쓰고 있으며 진홍색실로 짠 끈으로 턱밑에서 묶었다. 손에는 창가집을 들고 있는듯하다.

안에는 圓領內衣를 입고 곁에는 비교적 폭이 넓은 直領長袍를 착용하고 있으며 앞중심쪽으로 발끝까지 길게 드리운 술이 달린 폭이 있는 끈의 모습도 보인다.



〈圖 10〉 투르판 出土 9世紀 君主婦人  
出處：ARCHAEOLOGIE Und Kunst  
Der Seidenstrasse, p. 94.

〈圖 11〉 투르판 出土 9世紀 君主 모습

〈圖 10〉과 함께出土된 摩尼敎 깃발에 그려진 君主의 모습은 둑근 높은 冠을 쓰고 있는데 턱밑에서 붉은색의 끈으로 묶고 있으며 머리는 여려가닥으로 땋아 어깨길이 정도로 늘어뜨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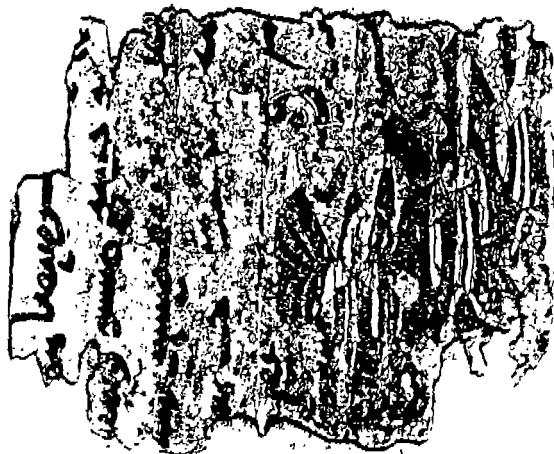
君主 左右에 이 깃발의 제작자 부부의 모습이 보인다. 부인은 전형적인 위구르 복장인 빨강색 圓領窄袖長袍를 입고 머리는 높게 올리고 있으며 남자는 위구르 특유의 모자를 쓰고 머리는 여려가닥으로 뒤로 늘이고 있다.



〈圖 11〉 투르판 出土 9世紀 君主  
出處：ARCHAEOLOGIE Und Kunst  
Der Seidenstrasse, p. 94.

〈圖 12〉 투르판 出土 10世紀 위구르 高官

그림에서 보이는 3사람은 通天冠과 비슷한 형태의 천으로 만든 冠을 쓰고 있고 冠의 뒷쪽에 흰색 천이 드리워져 있다. 흰색의 圓領窄袖內衣위에 直領廣袍를 착용한 것이 보이는데 內衣에는 반점이 표시되었는 것으로 보아結染된 천이라 생각된다.



〈圖 12〉 투르판 出土 위그르 高官  
出處：ARCHAEOLOGIE Und Kunst  
Der Seidenstrasse, p. 202.



〈圖 13〉 Astana 古墳 出土 위그르 男子  
出處：ARCHAEOLOGIE Und Kunst  
Der Seidenstrasse, p. 221.  
〈圖 14〉 Astana 古墳 出土 위그르 女子  
出處：ARCHAEOLOGIE Und Kunst  
Der Seidenstrasse, p. 221.

〈圖 13〉 투르판 아스타나古墳 出土 彩色木俑 위  
구르人 男子

위구르 특유의 작은 帽子를 쓰고 깃, 문부, 소매  
끝에 선이 둘러진 右衽의 둔부선 길이의 窄袖上衣  
에 폭넓은 바지를 입고 있으며 바지 밑은 felt 제로  
보이는 靴속에 넣어 입었다. 直領속으로 圓領內衣  
선을 볼 수 있으며 허리에는 帶를 띠고 있다.

〈圖 14〉 투르판 Astana古墳 出土 9世紀 위구르  
上流層 婦人의 木俑

진주로 장식된 두건을 쓰고 있고 턱밑에서 묶고  
있다. 깃, 소매끝에 선두를 장식이 있는 둔부선 길  
이의 襪와 폭을 여러개 이은 衫을 입고 있다. 襪의  
裳은 날염을 했는데 襪에는 連珠紋이 되었고 衫에는  
結頭染되었다. 結頭은 連珠紋과 마찬가지로 古代로  
마에 根源을 두고 있는 紡織製品인듯 하다. 허리  
에 모아진 양손때문에 보이지 않으나 帶를 띠워  
여몄을 것으로 보인다.

〈圖 15〉 투르판 Astana 古墳 出土 9世紀 위구르  
男子의 木俑

작은 帽子를 쓰고 깃과 밑단에 선이 둘러진 둔  
부선 길이의 窄袖저고리를 입고 통이 조는 뾰족한  
바지를 입고 있다. 이런 바지 형태는 古代이란  
지방에 살고 있던 유목민의 바지와 거의 같다. 저  
고리 깃선 안으로 圓領內衣가 보인다.



〈圖 15〉 Astana 古墳  
出土 위그르 男子  
出處：ARCHAEOLOGIE  
Und Kunst Der  
Seidenstrasse,  
p. 221.

〈圖 16〉 투르판 Astana古墳 出土 10世紀 위구르女人

이 여인은 챙이 넓은 鮢帽를 쓰고 있으며 直領襦에 통祚을 바지를 입고 있다. 新五代史 回紇條의 기록으로 보아 이여인은 기혼녀로 보인다.



〈圖 16〉 Astana 古墳 出土 위그르 女子  
出處：ARCHAEOLOGIE Und Kunst  
Der Seidenstrasse, p. 219.

〈圖 17〉 투르판 Astana 古墳 出土 위구르 여인의 두상

머리는 정교하게 빗어 넘긴듯하며 혹은 머리멍을 쓴 듯도 하다. 눈썹은 밀고 대신 연필로 그렸다. 당시 주민의 모습을 나타내준다.

〈圖 18〉 투르판 出土 樂器演奏하는 위구르 木俑  
머리는 크게 올린듯 하며 폭이 넓은 圓領內衣위에 直領左衽의 半臂를 입은 모습으로 당시 唐과의  
文化交流를 통해 위구르 여인들의 中國風 mode를  
받아들인 衣服양식이라 생각된다.



〈圖 17〉 Astana 古墳 出土 위그르 女人頭像  
出處：ARCHAEOLOGIE Und Kunst Der  
Seidenstrasse, p. 218.



〈圖 18〉 투르판 出土 演奏하는 女人  
出處：ARCHAEOLOGIE Und Kunst  
Der Seidenstrasse, p. 131.

〈圖 19〉 투르판 시쿠싱 寺院遺蹟 出土 男女 供養者像

투르판의 西쪽 시쿠싱 寺院 유적에서 中國工作隊에 의해 발굴된 위구르 男女 供養者像으로 남자 의 衫에 꽃모양이 장식되었고 여자의 머리모양이나 의복은 위구르 고유양식인 圓領窄袖長袍를 입고 外衣로 番領 style의 衫을 착용하고 있다.



〈圖 19〉 시쿠싱 寺院遺蹟 男女 供養者像

出處：東洋服裝史論叢, p. 226.

〈圖 20〉 투르판 出土 9世紀 깃발에 세겨진 위구르 宮女의 도습

양모이 있는 冠을 쓰고 있으며 목둘레와 수구에 장식선이 달린 圓領窄袖長袍를 입고 있다.

### 3. 現在 위구르人의 服飾

現在 위구르人의 服裝은 中央아시아의 우즈베크族이나 카토비즈族과 거의 같으며<sup>19)</sup> 남자는 바지를 입고 上衣는 結襟式의 구라우스 또는 샤텁을 입고 길옷으로는 둘무늬 木綿 옷감이나 또는 숨을 넣은 길옷을 여미지 않고 입거나<sup>20)</sup> 보자기풍의 대포진 湖巾을 걸쳐 둘러낸다. 머리에는 남녀를 막론하고 작은 모자를 썼으며 吐魯番花帽라 하 고 타지크 族·華人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모자를 쭈레테이까라 두르며 雜唇爾族의 전형적인 首飾이 있다. 일반적으로 四楞 또는 六角 또는 圓形으로 연마리 위쪽에 있다. 이슬람教의 예절에 근기하면 짚밖으로 나갈때에 가리개를 쓰지않으면 바로 하늘에 대한 모욕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모자의 색



〈圖 20〉 투르판 出土 위구르 宮女

出處：ARCHAEOLOGIE Und Kunst  
Der Seidenstrasse, p. 134.



〈圖 21〉 現在 위구르 男子

出處：東西の 服裝史, p. 188.

19) 杉本正年, 井上泰男, 松本敏子, 東西の服裝史, 衣生活研究會, 昭和60年, p. 188.

20) 華梅, 前揭書, p. 275.

깔은 주로 酢薇, 橘, 紫檀花色이었고 또한 구슬을  
꿰거나 별도로 작은 꽃을 꽂아 장식하였다.<sup>21)</sup> 특히  
長年男子는 머리를 등글계(丸坊子) 자르고 그  
위에 綠色바탕에 검은실과 흰실로 植物文樣을 刺  
繡한 帽子를 쓰는데 이 帽子에는 砂漠을 여행하는  
遊牧民의 오아시스의 푸르름에 대한 동경이 표현  
되 있는 것 처럼 생각된다. 宗教心이 깊은 이슬람  
교도는 흰 터번을 감아 쓴다.

女子는 失緋模樣의 원피스를 입거나<sup>22)</sup> 分段綾  
絲綢長衫을 입으며 大開領, 圓領 혹은 番羽領으로  
이중 番羽領이 가장 많고 領口는 잠그지 않으면  
아래는 단추로 채웠다. 곁에는 深紅, 深藍 또는 黑  
絨의 조끼를 입고 가슴에는 左右對稱으로 花무늬  
를 수놓았는데 포도무늬가 가장 많았다.

머리는 두갈래 혹은 여러갈래로 땋으며 장식을  
줄겨 하였다.<sup>23)</sup> 우루무치나 투르판의 위구르 婦人  
은 赤, pink, 紫, 紺色의 스카프를 머리에 두르고  
蘇聯領의 타지크共和國에 근접한 카슈카르의 위  
구르 女性은 茶色의 1m 평방의 편성물을 머리에  
서부터 쓰고 얼굴을 가리고 걸어 다니고 있는데  
파거 차도르의 잔촌이라 생각된다.<sup>24)</sup>



〈圖 23〉中國回鶻裝의婦人  
出處：中國服飾史, p. 113.

연령을 가리지 않고 보편적으로 半長靴 또는 무  
릎길이의 皮靴를 신는다.

#### IV. 結論

위구르王國의 服飾에 대해 文獻과 出土遺物資料를 통해研究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王은 高冠, 金花冠을 쓰고 머리는 몇가닥으로  
짜거나 길게 늘어뜨리며 붉은색 圓領窄袖長袍(薔  
薇錦布)를 입고 鞍轡帶를 끈다. 이러한 帶는 출토  
유물로 보아 王만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실용적  
의미보다는 階級標識이나 권위를 나타내는 것  
이 생각된다. 革製長靴를 신고 花대를 든다.

2. 王妃는 金冠, 博鬢冠을 쓰고 머리에는 도토르  
라는 가발을 이용해 5~6寸의 髻를 올리고 꽃, 새  
등을 장식꽃이로 한다. 圓領窄袖內衣위에 붉은색  
깃이 넓은 袍를 착용하며 뒤에는 머리에서 발끝길  
이의 綾를 臂部선에서 장식리본으로 묶는다. 王과  
마찬가지로 꽃을 들고 있는데 이는 王과 王妃의  
지위 및 권위를 나타내주는 상징물이며 기쁜 還生



〈圖 22〉現在 위그르 어린이  
出處：東西の 服裝史, p. 189.

21) 杉本正年, 井上泰男, 松本敏子, 前掲書, p. 189.

22) 華梅, 前掲書, p. 275.

23) 杉本正年, 井上泰男, 松本敏子, 前掲書, p. 189.

24) 上掲書, p. 189.

에 대한 믿음의 종교적 의미이다.

3. 일반男子는 작은 모자를 쓰고 內衣위에 胸部 선 길이의 선이둘러진 窄袖直領의 橫와 폭좁은 術를 입고 布帛, 皮革製 帶를 끈다. 王, 君主는 머리를 길러 여려가닥으로 땋아 늘였지만 일반남자는 짧게 잘랐다.

4. 일반女子는 머리에 髻를 하고 紅綢주머니로 싸거나 두건을 쓰고 기혼녀는 이에 旛帽를 덧쓴다. 남자의 橫와 같은 형태의 橫를 입고 衣을 입는다.

5. 의복재료로는 보직불, 면직불, 견직불, 마직불, 괴혁등을 사용하였다.

6. 쌈양은 凤凰、連珠紋, 雲紋, cartouch 등을 上과 王妃만이 사용하였다.

7. 刺繡와 繡魚袋을 하였는데 특히 結頭은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었고 連珠紋, 유리옹기등과 함께 紗마, 비잔틴으로부터 받아 들여져 위구르를 거쳐 中國으로 전해졌다.

8. 樂器는 琴, 琵琶가 주로 演奏되었다.

9. 現在에도 위구르인은 男女老少 모두 작은 帽子를 쓴다. 이는 지역적 조건으로 보아 방한용이라기 보다는 맨머리는 하늘에 대한 모욕이라는 종교적 의미이다.

10. 위구르는 中國五代時代에는 中國과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져 폭넓은 중국식 mode를 받아들이고 중앙에서는 回鶻裝, 回鶻髻 등 위구르 양식이 받아 들여져 유행하기도 하였다.〈圖 23〉

## 參考文獻

新唐書.

新五代史.

沈從文, 「中國古代服飾研究」, 商務印書館, 1981.

杉本正年, 「東洋服裝史論叢」, 中世編, 文化出版局, 昭和 54 年。

杉本正年, 井上泰男, 松本梅子, 「東西の 服裝史」, 衣生活研究會, 昭和 60 年。

權藤與志夫 編著, 「ウイグル その人びと 文化」, 朝日新聞社, 1991.

孫進己著, 林東錫譯, 「東北民族源流」, 東文選, 1992.

長澤和俊著, 関西勳譯, 「東西文化의 交流」, 民族文化社, 1991.

華梅著, 朴聖實 李秀雄譯, 「中國服飾史」, 牧春社, 1991.

玄將法師, 檀德周譯, 「大唐西域記」, 일월서가, 1983.

安丙燦, 「베제크리(Bezeklik)石窟壁畫의 研究」, 東國大學校 大學院 美術史學科, 碩士學位論文, 1989.

東アシアの古代文化, 17號, 大和書房, 1978.

敦煌莫高窟 第五券, 敦煌文物研究所編, 平凡社, 1982.

Along The Ancient Silk Routes, Central Asian Art,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1982.

ARCHÄOLOGIE Und Kunst Der Seidenstrasse, Hans Wilhelm Haussig, Germany, 1992.

龜井高孝 三上次男 堀米庸三, 「標準世界地圖」, 吉川弘文館, 1992.